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❺ 제인 로버츠, "세스 매트리얼" ①



▶ **한줄 요약**
꿈은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된다.

안보이는 존재와 교신, '채널링' 원조



제인 로버츠(Jane Roberts, 1929~1984)는…
시인이자 작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세스'와의 채널링을 통해 의식확장을 추구하는 모임을 갖고, 이 모임(세션)의 기록을 여러 책으로 남겼다. 서구인들에게 윤회 전생의 개념을 심어주었고, 다차원적인 존재로서의 참자아에 눈뜨게 하는 촉매가 되어 주었다. 세계를 리드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온 그의 채널링 저서들로는 〈세스 스피크스〉, 〈마음의 본질〉, 〈알려지지 않은 리얼리티〉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세스 매트리얼〉, 〈육체가 없지만 나는 쓴다〉가 출간되었지만(서민수 역) 현재 절판된 상태이다.



꿈,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물음표야말로 의식 확장의 첫걸음이자 도약대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 물음표가 본격적으로 삶 안에 똬리를 틀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같다. 이 지구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나'라는 존재와 세상살이에 의문을 제대로 품어 보기도 전에 개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어른들의 길들이기 작전에 쉽게 포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싸여 근본에 대한 물음표를 스스로 제기할 힘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떠밀려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기 일쑤다.

물음표가 없는 인생은 짐승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물음표가 알이 되고 그 알이 깨어나서 느낌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승들이 화두를 품는 것 같은 치열한 일련의 과정이 요구된다.

'채널링'이라는 낯선 형식을 통해 선잠에 빠져 있는 인류를 깨우는 말들을 지상에 씨 뿌리고 간 제인 로버츠의 업적 또한 물음표에서부터 시작된다.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물음표였다. 시인이자 작가였던 그녀는 예지몽을 자주 꾸었던 것 같다. 세상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라는 것이 무수히 일어나게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들이 겹친 끝에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꿈은 어떻게 해서 직선적인 시간의 질서를 뛰어넘어 족집게처럼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질서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인간은 예지적인 꿈을 꾸고 나서도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다고 믿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꿈이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길몽을 꾸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흉몽을 꾸어서 나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길몽이든 흉몽이든, 꿈과 현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가 없다. 꿈을 꾸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면, 꿈의 주관자는 시간의 질서를 뛰어넘는 '전지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교류로 의식 확장

1963년, 작가인 제인 로버츠는 34살, 그녀의 남편인 롭은 44살이었다. 그들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 9년째였다. 그들은 꿈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서점을 들락거리며 해답을 구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해 줄 적당한 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

롭의 제안에 따라 제인은 '위저 보드'를 통해 직접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위저 보드란, 트랜스 상태에서 저세상의 소리를 직접 받아 적는 서양식 '점판'이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묻고 해답을 듣는 과정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세스'라고 부르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제인은 위저 보드를 통해 한 글자씩을 점지해 듣는 답답한 과정을 건너뛰어, 마음속으로 말을 한꺼번에 전해듣는 능력을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 속에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 1963년에 시작된 이 실험은 1966년 "당신의 초능력을 발전시키는 법"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에 이른다.

1963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제인은 세스와의 이런 만남을 계속하고, 1996년까지 모두 23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중 일곱 권은 세스가 직접 기획 구술한 것이고, 두 권은 롭이 함께 참여하여 제인이 죽은 후 출판된 것이다.

> **일회적 삶에 길들여진 서구인**
> **윤회 전생과 다차원적 존재로**
> **진실에 눈뜨게 하는 새 장치를**

제인은 세스와의 만남을 통해, 3차원의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다른 현실들을 엿볼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란 더 깊은 다른 영역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게 된다. 그녀는 또, 전통적인 용어들로 자기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현상을 3차원의 현실 시스템에 한정짓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행위들은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자아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의 에너지와 생명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다른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앎을 확장할 수 있고, 그로써 다른 현실들이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1)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2) '영원한 현재'에 살라.
3) 우리는 무의식에 떠밀려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4) 우리는 '창조'를 표현하고 있는 신들이다.

세스의 메시지들은 수많은 생을 반복하여 살아간다가는 윤회 전생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고,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몸 말고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현실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질서 또한 결코 직선적인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여러 가능태들 중의 하나일 뿐임을 강조한다.

여러 책과 녹음 테이프 등을 통해 전해진 세스의 말들은 지진이 되어 그동안의 물질주의적인 관성과 매너리즘에 물든 서구인의 가슴을 찢어놓았고, 이후에 더욱 번성하게 된 불교와 양자물리학과 손을 잡고 동서 통합의 철학 및 종교를 잉태하고 길러내는 초석이 된다.

세스의 말이 전하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생경한 것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말들이 낯설고 새롭게 들리는 것은 상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방법이 달라져서 지구에서의 내 경험에도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빛의 존재'의 바람을 선연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다차원의 '나'에 눈뜨라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세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 '나'는 수많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육체를 띠고 있는 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은 채 의식으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당신은 이 세상이 아닌 저승만을 연상하곤 하지만, 육체를 갖지 않는 의식이 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하나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즉각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이런 특별한 존재 상태가 되려면, 당신들은 아마도 태어나고 죽는 일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없이 살고 죽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말하면 무슨 활극을 연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해 보았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서의 경험도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터득된 지혜와 앎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스의 눈에 비친 지구인은 대부분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블록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시야가 그렇게 제한된 상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블록이 지구인에게는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개념은 더 큰 블록을 쌓아 올리는 놀이 정도에서 멈추어 버린다. 어느 날엔가 '아이들의 장난감' 따위는 한쪽으로 치워 버릴 것이지만, 지금은 온통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육신을 지녀야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은 우리의 지구가 형성되기 오래전에도 존재했었다. 의식은 물질의 바탕을 이루는 힘이다. 의식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현실들을 지어 나간다. 우리 자신의 견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 존재의 규칙이자 양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물리적 현실을 전부라고 인식하여 에고를 지나치게 발전시키고 특화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접촉 지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 자신을 넘어선 곳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인간의 현실과 경험을 넘어선 곳에, 인간의 말로는 번역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참자아에게 있어서, 물리적 현실이란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내뿜어진 하나의 따뜻한 숨결처럼 연약하고, 덧없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 변장을 한 채, 자신이 변장하고 있음을 얼른 알아차리기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현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실감하는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이 있고, 현실의 시스템들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차원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출입구를 통해서 당신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시스템에 갇혀 여러 경험의 하나일 뿐인 작은 부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차원의 출입구로 가라고. 그래서 더 확장된 의식으로 현실의 억압당하는 피지배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마스터가 되라고. 그것이 당신들 자신이 성취해야 할 운명의 궁극이라고. 〈작가〉

